



‘불리한 기후·작물가격 약세’가 위축된 시장결과 초래

부진속 2/4분기의 물량반등으로 원만한 판매액 회복
‘사업권·품목’에 관계된 소규모 합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

듀폰(DuPo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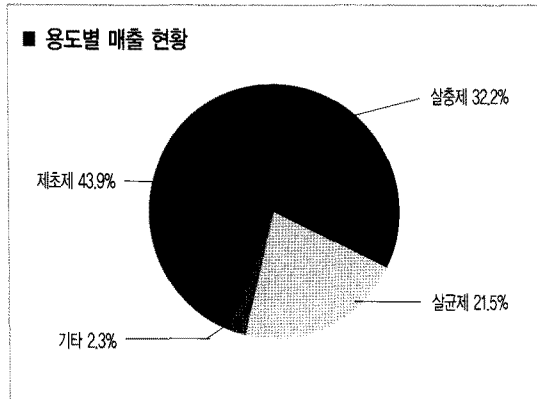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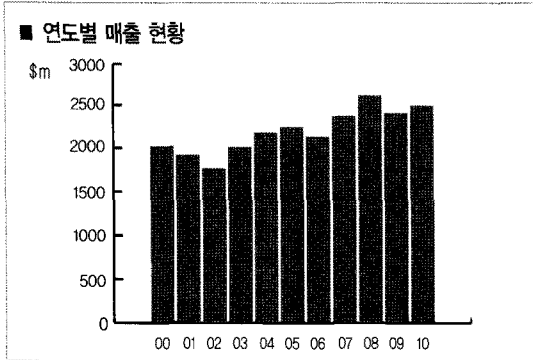
매출은 25억1천1백만 달러로 4.0% 증가하여 6위에 올랐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매년 2.2% 증가했으며, 2005년 이래로 매출 성장은 연 평균 2.2% 였다. 설폰닐우레아(sulfonylurea) 계통 제초제의 가격압박과 살균제 ‘Manzate’(mancozeb)의 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, 살충제 Rynaxypyr(chlorantraniliprole)와 살균제 pico-xystrobin 등 기타 살균제 매출 확대로 상쇄되었다.

지역별 북미 매출은 0.5% 하락했다. 이는 불리한 기후와 낮은 가격으로 인한 옥수수 및 콩 제품 판매량 증대를 상쇄시켰기 때문이다. 남미지역에서의 Rynaxypyr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격압박의 결과로 전반적인 매출은 평이했다. 유럽, 아프리카, 중동지역의 매출은 3.5% 증가했고 하반

기의 강한 회복세는 상반기의 부진을 상쇄시켰다. 아·태지역은 매출액이 16.4% 증가한 가장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. 주요 요인으로는 Rynaxypyr의 빠른 진출에 의한 것이다. 수도 제초제의 수요는 저조했다.

약제별 제초제 매출은 9.8%하락했다. 이는 불리한 기후, 수요 저조 및 가격 압박으로 보인다. 이와 같은 감소세는 glyphosate와 sulfonylurea 계통 농약에 대한 수요 저조에 따른 것이다. 비선택성 제초제 aminocyclopyrachlor은 미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로 새로운 수익을 내었다. 살충제 매출은 27.0% 증가하였고 이는 Rynaxypyr의 매출 증가에 의한 것이며 매출액은 4억 달러에 달했다. 살균제 매출액은 8.9% 증가했다, 이는 picoxystrobin과 신젠타의 azoxystrobin의 매출증가에 따른 것이나, Manzate(mancozeb)의 매각으로 인해 일부 감

소했다. 기타 농약 매출액은 1.8% 증가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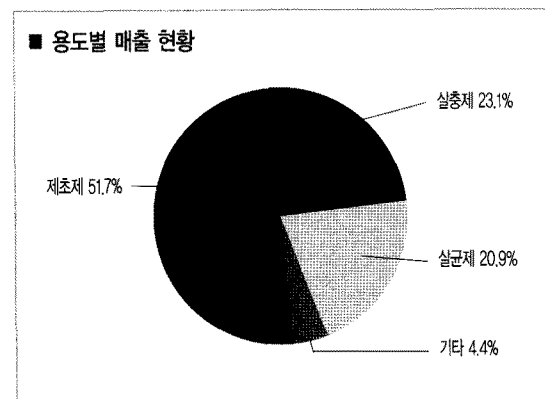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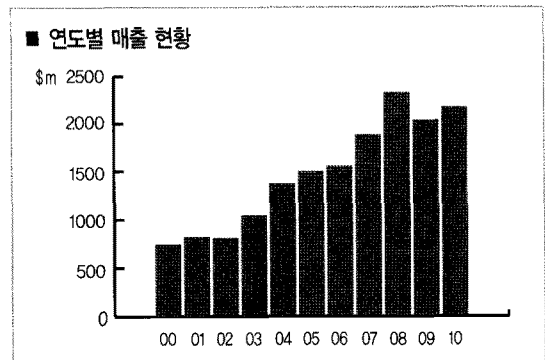
막테심-아간(Makhteshim-Agan)

매출액은 21억8천만 달러로 6.8% 증가했으며, 제네릭 회사 중 가장 큰 회사로 7위에 올랐다. 평균적으로 2000년 이후 매년 11.4% 증가하였고, 2005년 이후 성장률은 7.2%였다. 특히 하반기의 판매 증가는 불리한 기후와 높은 재고 및 경쟁심화 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의 여파를 상쇄시켰다.

2010년도에 한국의 제이케이 주식회사의 지분 51%를 인수하였고, 멕시코의 브라보 아그로 케미칼(Bravo AG)사의 지분을 100% 인수하였

다. 켐차이나(ChemChina)는 마케심-아간의 60%의 지분을 인수하였다.

지역별 주요 매출 지역인 유럽의 매출액은 불리한 기후, 높은 재고 및 불리한 조건의 환율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2.6% 증가하였다. 이 같은 성장은 동유럽의 주요 매출신장에 의한 것이다. 남미지역 매출은 0.4% 하락했으며,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브라질 사업상의 가격약세 여파에 따른 것이다.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와 기타 지역 시장은 신규품목 출시로 매출이 증가하였다. 북미 매출액은 판매가격의 하락을 높은 판매량으로 상쇄하여 평이하였다. 이스라엘 매출은 평이했고, 그 외 지역 매출은 인도, 오스트



리아 및 태국의 강한 수요로 인해 53.7%로 급격히 증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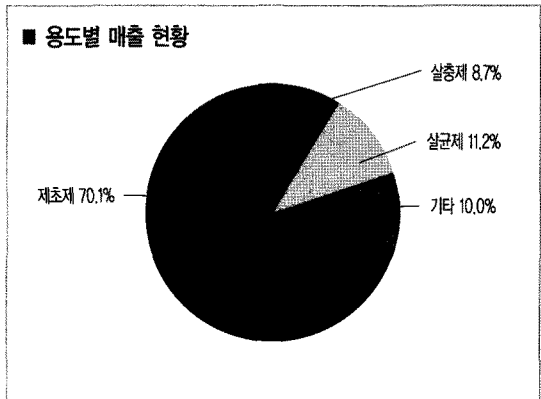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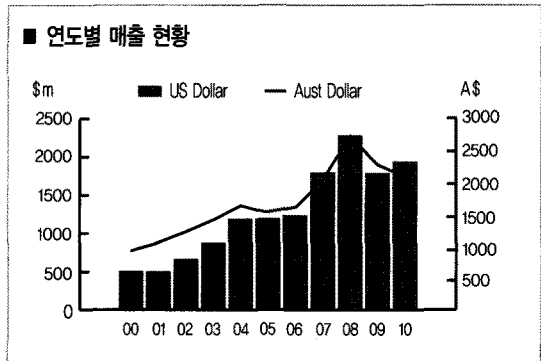
약제별 매출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초제로써 2010년에 9.3%증가했으며, 농약 매출액의 약 52%를 점유하였다.

제초제 분야는 아·태, 동유럽 및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의 강한 수요로 수익을 얻었으나, glyphosate의 가격 하락으로 매출의 일부가 상쇄되었다. 살충제 매출액은 7.9% 하락했다. 이는 해충발생 저조와 낮은 가격에 의한 것으로 특히 서유럽이 심하였다. 살균제 매출액은 12.1% 증가하였고, 남미지역과 아·태지역의 높은 판매량은 가격 약세를 상쇄시켰다. 기타 농약 매출액은 60.0% 증가했으나 매출액 점유율에서는 단지 4%에 머물렀다.

뉴팜(Nufarm)

매출은 8.1% 감소한 21억1천6백만달러로 8위에 올랐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호주달러로 매년 평균 9.4% 증가하였다(달러로 14.5% 상승).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은 호주달러로 매년 6.2% 증가하였다(달러로 10.3% 증가).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제네릭 회사로 glyphosate와 phenoxy계 제초제가 주력 품목이다. 스미토모 화학이 2010년 4월 뉴팜사 지분의 20%를 인수했다.

지역별 glyphosate의 낮은 가격 여파를 상쇄할 만큼 유리한 기후 여건으로 활발한 수요가



있었고 호주, 뉴질랜드의 매출은 달러로 19.6%(호주달러 18% 증가)성장하였다. glyphosate의 경쟁 가열로 인해 북미 매출은 달러로 3.2% 감소하였다. 그러나 살충제와 종자처리제의 매출 성장으로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다. 남미 지역은 살균제, 살충제와 phenoxy계 제초제의 매출 증가와 스미토모 제품의 기여로 7.2% 증가하였다.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의 영향으로 유럽지역의 매출은 달러로 0.9% 하락 하였다. 기타 극동지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높은 성장세로 매출은 43.1% 증가하였다.

약제별 제초제 매출은 4.5% 증가하였다.

원인으로는 phenoxy계 및 기타 제초제의 수요가 감소된 glyphosate 수요를 상쇄할 만큼 더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. glyphosate는 전년대비 11% 감소하였고 달러로 4억8천5백만달러로 2010년 전체 매출의 25%를 점유하였다.

살충제 매출은 Imidacloprid의 호주와, 남미 지역의 높은 수요로 인해 15.8% 증가하였다.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분야는 살균제로 47.6% 증가했다.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많았지만, 특히 호주 및 기타 극동지역의 수요가 많았고, 브라질은 스미토모 살균제 판매 성공도 매출 증가에 한 몫 하였다. 기타 농약은 곡류 부분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매출이 3.5%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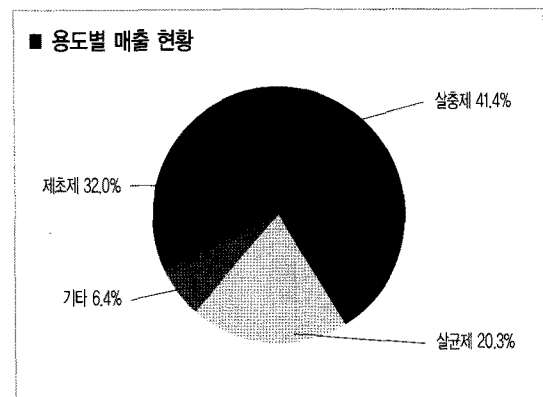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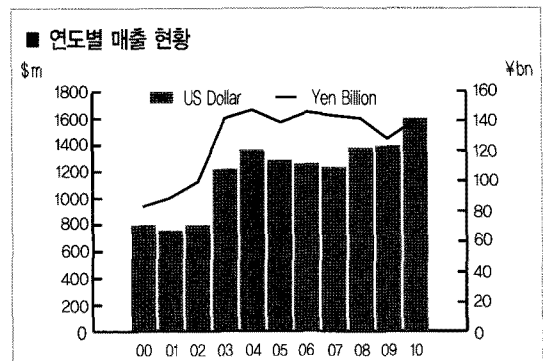
스미토모 케미칼(Sumitomo Chemical)

매출은 7% 증가한 1천4백3억4백만엔이며, 달러로는 14.1% 증가한 15억9천9백만달러로 세계 농약산업 순위 9위에 올랐다. 북미지역의 선택성 제초제 사업성장에 힘입어 연간 매출실적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. 2000년 이래 엔화로 매년 평균 5.2%의 성장을 보였고, 달러로는 매년 평균 7.4% 성장을 보였다. 2005년 이후 연 평균 성장률은 엔화로 0.3% 감소 및 달러화로 4.4% 증가하였다.

지역별 일본 매출액은 엔화기준으로 수도 시장의 강세와 신규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13.8% 성장을 보였다. 달러로는 21.3% 성장했

다. 유럽 시장은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달러로 5.5%(엔화 11.3% 감소) 감소하였다. 미국의 지속적인 제초제 수요 강세로 북미지역 매출은 3.3%(엔화 3.1% 감소) 증가하였다. 기타 극동 지역 시장은 중국과 호주에서의 매출 성장으로 41.5%(엔화 32.7% 증가) 증가하였다. 그 외 국가는 남미지역의 큰 수요와 아프리카의 모기장용 Olyset(permethrin)의 성장으로 36.6%(엔화 28.1% 증가) 증가하였다.

약제별 가장 큰 실적을 낸 분야는 살충제로 달러기준 24%(엔화로 16.3% 증가) 증가했다. 모기장용 Olyset(permethrin)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고, Dantotsu/Belay(clothianidin)



수요 또한 증가하였다. 제초제는 Select (clethodim)과 Valor(flumioxazin)와 같은 선택성 제초제의 수요증가로 매출액은 10.1%(엔화 가치로 3.3% 증가) 증가하였다. 살균제는 Quash (metconazole) 과 Presidio (fluopicolide) 매출 증가로 4.5%(엔화 2% 감소)증가하였다. 기타 농약 매출은 8.5%(엔화로 1.8% 증가) 증가하였다.

에프엠씨(FMC)

매출은 18% 증가한 12억4천2백만달러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보임으로써 아리스타를 넘어 농약산업순위 10위 자리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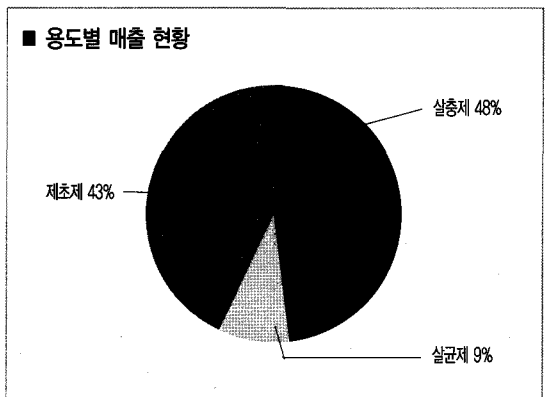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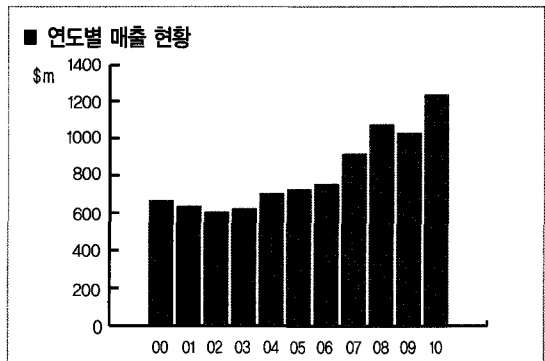
2000년 이래 매년 평균 6.4% 성장 하였고, 2005년 이래 매년 평균 11.4% 성장을 보였다. 2003년 전략적 정책인 신규 제품 개발 및 신규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. 남미지역, 아시아 및 북미지역의 매출 성장의 영향이 컸다. 각 분기별로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.

지역별 북미지역 매출액은 12.4% 증가하였다. 이는 목화의 높은 수요와 선택성 제초제 사업 성장이 주도했다. 가격압박은 수익의 일부를 상쇄시켰다. 남미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매출이 25.4% 증가했다. 시장경기가 좋아지고 사탕수수과 목화 제품의 활발한 수요와 함께 재배면적의 확대가 성장을 도왔다. 유럽지역은 증유립

과 아프리카 지역의 제초제 선전으로 비교적 평이한 2.3% 증가하였다. bifenthrin 재등록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주춤하였다. 아시아 지역은 개선된 시장여건과 신규제품 출시 및 환율 호전으로 매출액이 18.1% 증가하였다.

약제별 제초제는 저항성 잡초를 대상으로 한 신규 제품 출시로 12.8% 증가하였다. 새로 출시된 Cadet(fluthiacet-methyl)은 꾸준히 좋은 실적을 냈다. 살충제 매출은 남미의 높은 수요와 미국의 목화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18.1% 증가하였다. 규제 문제로 bifenthrin과 carbamates계가 일부 매출이 감소되었다.

살균제 사업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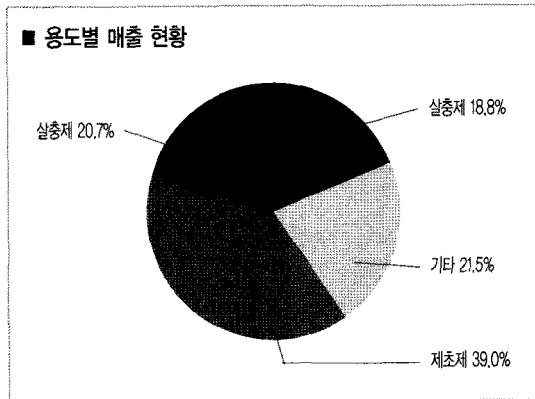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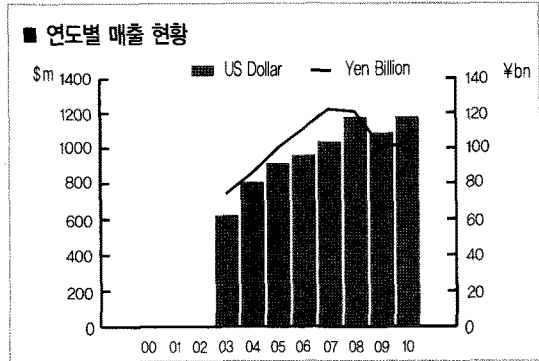
매출은 51.8% 증가하였다. 이는 2010년 중순에 등록된 benalaxyl의 영향이 컸다.

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(Arysta LifeScience)

매출은 엔화로 0.9% 상승한 1천26억8천3백만엔이었다. 달러로는 7.6% 증가한 11억7천만 달러이다. 농약산업계에서 전년대비 1순위 하락한 11위를 차지했다.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은 달러로 5.3%(엔화 평균 0.6%증가) 증가했다. 극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달성했다. 극동지역에서는 저 수익 무역활동으로 매출이 저조하였으나 벗어나고 있다. 규제 개정과 이상기후 역시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. 하지만 북미, 남미지역에서의 제초제와 살균제 성장이 극동지역의 저조한 매출을 상쇄시켰다.

지역별 유럽지역에서는 달러로 0.3% 증가하였다. 동유럽의 완화된 신용거래 여건과 신규 제품 출시의 영향이 컸다.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는 모잠비크의 설탕 시장호황과 Tsunami 제품 사업의 통합으로 매출이 달러화로 8.4% 상승하였다.

남미지역은 사탕수수과 목초지 관련 제품의 영향으로 14.1% 매출성장을 달성했다. 가격압력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(호주, 뉴질랜드 포함)은 clethodim과 fluoxastrobin의 성장으로 매출이 19.8% 증가하였다. 일본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11.2% 하락하였다. 이는 기후영



향과 일본의 규제 개정 문제 및 거래감소의 결과이다.

약제별 제초제는 clethodim, flucabazone, amicarbazone, picloram의 큰 수요로 glyphosate 매출 감소를 상쇄시켰으며, 매출액은 10.1% 증가하였다.

살충제는 일본과 브라질에서 아세페이트의 낮은 매출로 10.4% 감소하였다. 살균제는 fluoxastrobin, captan, kasugamycin 및 BASF의 Envoy(pyraclostrobin + epoxiconazole)와 같은 타사 제품의 제조, 판매의 영향으로 22.1% 증가하였다. 기타 농약 매출은 13.5% 증가하였다. ㉞